

2024학년도 연세대학교 면접구술시험

정시모집 일반전형 국제계열

※ 다음 제시문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제시문 <가>

판옵티콘의 어원은 ‘모든 것을 본다’라는 뜻의 그리스어로, 우리가 모두 겪고 있는 디지털 감시 체제를 묘사하기에 안성맞춤이다. 벤담의 판옵티콘과 현대의 디지털 판옵티콘을 나누는 중요한 차이점은 벤담의 경우 사람들이 감시당하고 있지 않을 때조차 감시당한다고 느끼도록 하고 싶어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디지털 판옵티콘의 설계 목표는 우리가 늘 감시당하고 있으면서도 감시당하지 않는다고 느끼도록 하는 것이다. 게다가 벤담의 판옵티콘이 시각적인 정보만 제공할 수 있었던 것에 반해 새로운 디지털 판옵티콘은 마음을 읽는다.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비듬처럼 흘리고 다닌다. 그런 것들을 모두 합치면 아마존과 구글 같은 기업은 나에 대해서 내가 아는 어떤 사람보다도 훨씬 많은 것을 알고 있다. 그들은 책, 음악, 영화, 언론에 대한 나의 취향을 알고 있으며 꽤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 나의 정치 성향을 알며 내가 어느 취미에 열심이고 어느 취미에 소홀한지 안다. 나의 은밀한 욕망과 부끄러운 허영심을 안다. 일기장에도 적지 못했을 만큼 내밀한 것까지 알고 있다.

제시문 <나>

한 칠면조가 있었다. 이 칠면조는 매일매일 자신에게 먹이를 주러 오는 농부를 관찰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칠면조는 이 농부를 점점 더 신뢰하게 되었다. 어제와 오늘도 농부는 칠면조에게 와서 먹이를 주었다. 그러니 내일도 와서 먹이를 줄 거라 예상했다. 추수감사절 아침, 그날도 먹이를 먹게 되리라 생각했던 칠면조는 죽어서 오븐에 들어갔다.

AI의 목표는 데이터 안에 있는 규칙을 학습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 데이터 안에 배울 규칙이 없다면 어떨까? 칠면조 이야기는 AI에도 적용된다. 과거의 경험에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경험은, 우리가 믿는 바는 설혹 그 믿음을 지지하는 데이터가 많다고 하더라도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걸 잊으면 실수를 하게 되는데, AI는 그럴 때 실수를 줄여주는커녕 오히려 더 증가시킬 수도 있다. AI의 목적은 답을 내놓는 것이기에, 언제나 답을 내놓을 것이다. 그러면 과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측한 미래가 언제나 옳지는 않은데도, AI라는 복잡해 보이는 시스템이 주는 답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그 답을 지나치게 믿기 쉽다.

제시문 <다>

셰익스피어의 5대 희극 중 하나인 『뜻대로 하세요』에는 다음의 대사가 나온다. “세계는 하나의 무대요, 모든 인간은 단지 배우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등장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퇴장하지요.” 우리는 삶이라는 각본을 연기하는 배우이자 타인의 연기를 지켜보는 관객이다.

21세기에 발생한 주목할만한 변화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같은 SNS가 대중화 되면서 쇼의 무대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인터넷이라는 가상세계에서 쇼의 연출성은 더욱 극대화된다. 이때, SNS 쇼는 반드시 희극이어야만 한다. '좋아요'의 규칙이 지배하는 SNS 무대에서는 비극이 허락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시험 합격, 낭만적인 데이트, 결혼, 출산처럼 기쁘고 부러움을 살 만한 콘텐츠를 SNS에 업로드하는 사람은 많다. 반면에 시험 불합격, 해고, 이별이나 배신 등 슬픈 내용의 콘텐츠는 찾아보기 쉽지 않다. 게다가 SNS 사용자들이 오프라인 일상에서 벌어진 일을 그대로 온라인 자아에 반영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온라인 자아를 위해 오프라인 삶을 기획하고 조작한다. 예를 들어 어떤 이에게는 전시회에 가서 작품을 관람하는 일보다 그럴 듯한 인증샷을 찍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일일 수 있다. 그가 전시회에 간 주요 동기가 온라인 자아에 멋진 이미지를 부여하는 것이라면 말이다.

제시문 <라>

Sometimes you just have to tell people about your delicious brunch, so you make a quick post on Instagram about your French toast. But why do you want to share about your personal life with others? Studies of human conversation have documented that 30-40% of everyday speech is used to relay* information to others about one's private experiences or personal relationships, and recent surveys of Internet use indicate that upwards of 80% of SNS posts consist simply of announcements about one's own immediate experiences. Although other primates** do not generally attempt to communicate to others what they know—for example, by pointing out interesting things or modeling behaviors for others to imitate—by 9 months of age, human children begin trying to draw others' attention to aspects of the environment that they find important, and adults in all societies make consistent attempts to share their knowledge. Recently, a number of scholars have argued that such unusually high rates of self-disclosure derive from a species-specific motivation to spread one's beliefs and knowledge about the world, suggesting that our species may have an innate*** drive to disclose thoughts to others.

*relay, 전달하다; **primates, 영장류; ***innate, 타고난

[문제 1] 제시문 <가>, <나>, <다>의 관점을 비교하시오. (40점)

[문제 2] 제시문 <라>를 바탕으로, 제시문 <가>와 <다>를 분석하시오. (60점)